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명 및 직 위	윤지소 국제협력센터장
출장기간	2023. 8. 8.(화) - 8. 11.(금) [2박 4일]			
출장지	태국, 방콕			
출장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UN 회원국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여성평화안보 의제 확산 관련 모범 사례 발굴함			
경비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기관	WPS-HA Compact(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지원에 관한 협약)			
출장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최신 동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li> <li>•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한 한국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확산 노력에 대한 발표</li> </ul>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

여성, 평화, 안보 의제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참석을 위한 태국 출장

# 출장 복명서

2023. 8.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 제 협 력 센 터

# 1

## 출장 개요

- 기간: 2023년 8월 8일 - 8월 11일 (2박 4일)
- 주최: UN Women 아태사무소 및 WPS-HA Compact(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지원에 관한 협약)

□ 장소: 태국, 방콕

□ 출장자: 윤지소 국제협력센터 연구위원

□ 출장배경 및 목적:

가. UN Women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와 WPS-HA Compact(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지원에 관한 협약)는 2023년 8월 9-10일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달성을 위한 지역 회의: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 발전 경험(Regional Conference on Promoting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in Asia and the Pacific: Experiences in Advancing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을 개최함.

나.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이 대두하는 가운데, 지역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자 하였음. 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30개국에서 활동하는 정부 안팎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논의의 장을 제공하였음.

다. 구체적으로 지역회의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25 국가행동계획 모범 사례 공유
- 국가행동계획 및 ASEAN 지역행동계획의 목표, 접근 방식, 전략 학습
- 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지원에 관한 협약의 영향 분석
-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및 성공적 이행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원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지역 내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 출장 일정:

일자	세부내용	장소
8/8 (화)	○ 출국: KE 657 인천 09:30 ○ 도착: 방콕 13:15 도착 ○ 방콕 수완나품 공항 - 회의장소/숙소 이동	인천 ⇒ 방콕
8/9 (수)	○ 회의 참석 -오전: 회의 참석 -점심: 네트워킹 오찬 -오후: 회의 참석 -저녁: 네트워킹 만찬	노보텔 방콕 스쿰빗 20
8/10 (목)	○ 회의 참석 -오전: 패널 발표 및 토론 -점심: 네트워킹 오찬 -오후: 회의 참석 -저녁: 공항 이동	노보텔 방콕 스쿰빗 20
8/11 (금)	○ 출국: KE 652 방콕 01:40 ○ 도착: 인천 9:25 도착	방콕 ⇒ 인천

□ 출장비용: 전액 주최측 부담

## 개최 배경 및 일정

### □ 배경

- 2000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가 채택된 이래 아홉 개의 추가 여성평화안보 관련 결의안이 발표되었음.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확산은 UN Women 설립 이래 기관의 주된 미션 중 하나였음. 다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평화안보 의제 확산과 관련하여 정치적 의지나 재정 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나아가, 최근에는 기후 변화, 사이버 보안 및 폭력적 극단주의를 포함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대두되어 혁신적인 대응과 해결책이 요구됨.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만큼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는 특징을 보임. 이에, 식량안보 및 자원 경쟁과 관련된 공동체 간 긴장과 충돌의 가능성이 높음. 더욱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으며, COVID-19 중에 디지털 공간의 확장으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위협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 및 소녀가 온라인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발전 과정 및 최신 글로벌 동향,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각국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이행 경험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회의는 패널 토론과 개별 전문가 발표, 조별 활동 및 전체 토론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시아 및 태평양 각국의 정부 관계자, 시민 사회 대표, 유엔 기관 및 연구/학술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음.

시간	세션
1일차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li> <li>• 개회식</li> <li>• 사진촬영</li> <li>• 기조 강연 및 질의응답</li> </ul>
점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킹 오찬</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널 I: 글로벌 안보 위협 및 신규의제: 여성, 평화 및 사이버 보안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평화 구축</li> <li>• 패널 II: 글로벌 안보 위협 및 신규의제: 기후, 안보 및 젠더 넥서스</li> </ul>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킹 리셉션</li> </ul>
2일차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사례 발표 및 토론:국가 및 지역 수준의 여성평화안보 행동계획(NAP) 모델</li> <li>• 패널 III: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WPS 지역화 - 동향, 도전과 미래에 대한 교훈</li> <li>• 패널 IV: 국가행동계획 수립</li> </ul>
점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킹 오찬</li> </ul>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별 활동</li> <li>• 패널 V: 포용성, 다양성과 여성평화안보</li> <li>• 폐회</li> </ul>

## 세션별 논의 요약

### 1. 개회사 및 기조강연

□ 일시: 2023.8.9(수), 9:00~12:00

□ 참가자

- Ms. Stephanie Copus-Campbell, Ambassador for Gender Equality, Australia
- Ms. Signe Gilen, Norway Special Envoy for Women, Peace and Security, WPS-HA Compact Board Co-Chair
- Ms. Sarah Hendriks, UN Women Deputy Executive Director
- Ms. Amani Aruri, YPS/WPS Ambassador, Karama Network
- Ms. Norul Mohamed Rashid, Policy Advisor on Governance and Peace & Security for Asia and the Pacific, UN Women
- Ms. Harriette Williams Bright, Thematic Lead, WPSHA Compact, UN Women

□ 내용

○ 개회식

- 호주의 Ms. Stephanie Copus-Campbell은 호주 정부가 개발협력이나 외교부 차원이 아니라 전정부 차원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아태 지역의 의제 확산을 위한 호주의 계속된 지원을 약속하였음.
- 노르웨이의 Ms. Signe Gilen 역시 여성평화안보가 노르웨이 정부에 있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1325 결의안이 채택된지 23년이 지난 지금 국내외적으로 의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함. 특히 혼자일 때 보다는 함께일 때 더 힘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다자 간 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국가 및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는 플랫폼인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함.
- Ms. Sarah Hendriks는 아태지역에서 여성평화안보 의제 확산 관련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특히 신규 지역행동계획(Regional Action Plan) 및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의 연쇄적 수립을 환영함. 동시에, ‘분쟁과정’에서의 평화안보만을 고려하고 있는 현실,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낮은 참여와 같은 지속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함.
- Ms. Harriette Williams Bright는 여성 NGO 없이는 1325나 다른 결의안 통과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여성이 참여한 평화과정이 다르게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과가 달라야 한다면, 평화구축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기조강연

- 기조강연자로 나선 Ms. Norul Mohamed Rashid는 UN Women이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기구임을 설명하고, 여성평화안보 의제 확산을 위한 UN Women

차원의 여러 노력을 나열함. 총 10개의 여성평화안보 관련 결의안이 탄생했는데, 그중 절반이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에 관한 것이고, 최근에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같은 새로운 주제들이 등장함. 지역 행동 계획의 수립은 지역 내 국가들 간 협력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됨. 동시에,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비무장화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Ms. Harriette Williams Bright는 2021년 세대평등포럼의 결과로 탄생한 ‘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 활동에 관한 협약’의 탄생 배경 및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함. 협약은 분쟁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의 보호와 참여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강조함.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협약 당사자(signatories-아태 지역 당사자는 전체의 12%를 차지)에 대한 소개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언급하고, 이행점검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을 설명하였음.

## 2. 패널 I: 여성, 평화 및 사이버 보안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평화 구축

□ 일시: 2023.8.9(수), 14:00~15:30

### □ 주요내용

#### ○ 논의사항

- 평화와 안보의 맥락이 확장되었음. AI 및 사이버 보안 문제는 여성평화안보와 깊게 연결되어 있음. 여성과 소녀,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특히나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위험과 혜택을 동시에 가져옴. 특히,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서 문제에 대한 공감은 있으나 자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임.
-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평화와 안보보다 경제 발전에 관해 논의하는 것에 익숙함. 인공지능은 여성과 소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차별, 편견, 소외와 같은)도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 보안 리터러시와 자기 효능감 등이 강조될 필요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온라인 여성 혐오가 증가하였음. 극단주의자들이 혐오 표현과 온라인 여성 혐오를 확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에는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소스의 모양과 느낌의 모방, 맥락에서 벗어난 사실의 강조 등이 있음.

## 3. 패널 II: 기후, 안보 및 젠더 넥서스

□ 일시: 2023.8.9(수), 15:45~17:00

### □ 주요내용

#### ○ 논의사항

- 파키스탄은 국가행동계획이 없음. 그러나 여성평화안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프레임워크로서 유용할 수 있음. 기후변화 관련 담론이 서구 사회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임.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17개의 국가행동계획이 기후 변화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남.
- 네팔의 신규 국가행동계획은 여전히 기후변화를 통합하고 있지 않음. 기후변화는 분쟁

을 격화시킴. 또한 강한 몬순, 코로나, 지진을 야기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세대 간 대화, 자금조달 등 모두 중요한 도구임.

- SIPRI는 현재 국가행동계획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함. 전 세계적으로 127개의 국가행동계획이 있고, 국가로 따지면 80개 중 17개의 국가행동계획이 기후 변화를 언급했음. 그러나 어떻게 언급되는지는 다양함. 8개의 국가행동계획이 단순히 UNSCR 2242를 언급함. 대체로 목표 이행을 위한 자금 지원을 언급하지 않음. 독일, 우간다, 영국 국가행동계획은 기후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함. 기후 변화는 점차적으로 국가행동계획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 국가행동계획이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예산 확보와 더불어 모니터링 및 평가가 잘 되어야 함.
- 노르웨이는 5차 국가행동계획을 이행중에 있음. 기후 변화와 재난에 많은 관심과 자금이 집중되고 있지만, 특별히 성별을 고려한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강조될 필요 있음.

#### 4. 패널 III: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WPS 지역화 - 동향, 도전과 미래에 대한 교훈

□ 일시: 2023.8.10.(목), 9:00~10:30

##### □ 주요내용

###### ○ 발표

- 국제 수준에서는 정책과 법률이 부족하지 않음. 하지만 분쟁은 지역(local)에서 발생함. 실질적 이행과 의제에 대한 오너십이 여전히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현재 30개 국가에서 지역화(localization)를 지원하고 있음. 필리핀은 지역화를 성공적으로 이행중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음. 100개 이상의 행동 계획 중 1/4만이 예산을 할당한 것으로 나타남. 별도의 예산 이외에도 성인지 예산의 확대가 중요함.
- 한국은 2014년에 1325 NAP를 처음 도입한 후 2차, 3차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했으며, 2024년 1325 NAP 채택 10주년을 기념하여 현재 제4기 국가행동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기존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4차 국가행동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1) 국가행동계획에서 사이버 보안 및 기후 변화와 같은 새로운 주제를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2) 민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3) 모니터링&평가를 체계화한 타 국가의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제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는 UN Women 아태사무소의 '여성, 평화, 사이버 보안에 관한 유엔 여성 프로그램(디지털 세상에서 여성의 평화와 안보 증진)'과 같은 사업을 지원했으며, 마찬가지로 한국의 개발협력기관인 KOICA도 여성, 평화, 안보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해 왔음. 구체적인 예로는 2022년 분쟁 및 분쟁 피해지역에서 수행된 KOICA의 사업들이 있음. 또한, 한국은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안보, 평화유지, 여성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주도적 논의'를 약속했는데, 향후에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이외에도 일본, 캐나다 등이 국가행동계획 이행 노력에 대해 발표했는데, 일본은 제3



차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고, 특히 재난과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네팔 및 인도네시아의 지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밝힘.

## 5. 패널 IV: 국가행동계획 수립

□ 일시: 2023.8.10.(목), 10:45~12:45

### □ 주요내용

- 세계 각 지역의 국가행동계획 및 지역행동계획(예, 네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아프리카 연합 등.) 수립 및 이행 현황에 대해 논의함.
- 특히,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함. 그 예는 다음과 같음.
  -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방안. 동시에 정부에 흡수(co-opt)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며 협력하는 방안.
  - 다수의 국가들이 여전히 국가행동계획 관련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문서로 약속(commit)한 것과 실제 예산 할당 사이에 차이가 있음.

## 6. 조별활동

□ 일시: 2023.8.10.(목), 14:00~15:15

### □ 주요내용

- 다음의 6가지 주제에 대해 조별로 발전 방안을 브레인스토밍하는 시간을 가짐.
  - 국가행동계획의 포괄적이고 교차적인 논의 과정
  - 조정 체계(coordination mechanism)
  -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 국가행동계획 관련 재정적 지원
  -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 과제
  - 여성평화안보 관련 신규 의제

## 7. 패널 V: 포용성, 다양성과 여성평화안보

□ 일시: 2023.8.10.(목), 15:30~16:30

### □ 주요내용

- 발표
  -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경험과 관련해 여전히 잔류하는 문제는 교차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토큰즘(tokenism)의 일환으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례 여전히 있음. 성인지적 접근법과 더불어 소수민족의 참여 등이 강조될 필요 있음.
  - 아프가니스탄의 1325 국가행동계획에 대해 소개함. 2020 미국 아프가니스탄 협정에도 여성은 대표되지 않았음. 국제 사회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묵인했음. 국가행동계획의 실패사례라고 볼 수 있음.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음.

- 결의안 2475(2019)는 장애 여성 참여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에서 장애 여성은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난민 캠프보다는 원래 거주하던 곳에 잔류하기를 희망한다는 것 알 수 있음. 분쟁상황에서 장애 여성은 젠더폭력 피해자가 될 확률 높음. 그 이유는 도망가기 힘들고, 신고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임.
- 필리핀 방사모르 지역에는 2019에 자치정부가 설립되었음. 필리핀 정부는 4기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며, 방사모르 정부는 방사모르 커뮤니티 각지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차원의 지역행동계획을 이행하고 있음.

### 3

## 요약 및 시사점

### □ 요약 및 시사점

-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부 및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성공과 실패 사례를 서로 공유하며 시사점을 도출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음. 특히, 2023년에 수립된 ASEAN 지역행동계획과 스리랑카 국가행동계획과 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여성평화안보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하였음. 또한, 기후변화 및 사이버 안보와 같이 새로 등장한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 시사점

- 본 회의는 2000년도에 1325 결의안이 채택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예를 들어, 여성평화안보 의제는 분쟁과 종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비무장화의 중요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UN은 회원국 및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등 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노력해왔음. 무엇보다도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여성평화안보는 국제 규범이지만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 현지화에 성공한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이 강조되어야 함.
-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임. 국제기구 혹은 공여국의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 이외에도 성인지예산의 제도가 여성평화안보 의제 확산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
- WPS-HA Compact(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지원에 관한 협약)은 여성평화안보 의제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특히,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최근에는 일본이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ASEAN 지역

행동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여성평화안보 의제 확산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2000년도에 1325 결의안이 채택될 당시에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바탕으로 여성 평화안보 의제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사이버 안보와 같은 위협이 등장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신규 의제를 반영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